



21세기 지부 활성화를 위한 제언

이 공 회*

(*전북대 공대 전기공학과 교수, 전북지부장)

일년전 대한 전기학회 전북지부장의 책임을 맡은 후 짐
체된 지부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많은 고심을 했
었다. 일년간의 여러 가지 노력 끝에 차츰 활성화의 기미가
보이고 있는 터에 갑자기 학회의 편집위원으로부터 활성화
방안을 소개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 우리지부가 제일 활동이 미약하여
이에 대한 채찍과 발전의 노력을 요구하는 부탁으로 받아
들이고 기쁜 마음으로 펜을 들었다. 아직은 너무 미약하고
현재도 진행중인 계획이 많아 소개하기 조금은 부끄럽지만
그 동안의 활동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을 전국의 모든 회원
들에게 밝힘으로써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 보고자 한다.

먼저 현재의 우리 전북지부의 현황부터 소개한다. 1965년
도에 대한 전기학회가 창립되고 정확히 10년 후인 1975년
에 전북지부가 창립되었으니 어언 22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로 보면 이제 열기 왕성한 청년기로서 가장 왕성한 활
동이 기대되는 시점이며 여타 다른 지부에 비해서도 그리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회원은 총 130명으로 이 지역 대학중 전기관련학
과가 설치되어 있는 전북대, 원광대, 군산대를 위시하여 전
주공전을 비롯한 전문대학의 관련학과 교수진, 산업체 대표
및 유관기관의 전기 전공 인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산업체수가 매우 적고 연구소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는
이 지방의 열악한 특성이 회원확보 및 지부 발전의 저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근년 들어 전기분야가
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및 제어분야 등으로 전공이 세분화
되면서 상대적으로 전기분야의 고유영역이 좁아져 활동이
위축되는 것도 또한 현실이다. 전공에 따른 회원들의 분산
현상과 자기 영역만이 제일이며 다른 분야에 대한 배타정
신이 회원들간의 소속감 분열 및 전기인으로서의 자긍심
고취를 저해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지부장으로 취임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이 바로 전기분야에 소속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전기학회 회원으로서의 주인의식을 되찾는 일이었다. 그래
서 전기학회의 발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서로 단결하여

우리 것을 찾아서 발전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전력기술관리법도 새롭게 제정된 상황하에서 전기분야에
근무하는 전력기술인들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유도해내는
것도 급선무로 생각하였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근거하여 우선 침체되어 있
는 우리지부에 생명력을 불어넣어 보다 활기찬 지부로 육
성하기 위한 몇 단계 계획을 수립하고 일년간 착실하게 진
행시켜 왔다. 아직도 많은 계획들이 진행 중에 있으며 그
성과는 장담할 수 없으나 그 동안 활동한 내용을 위주로
간단하게 우리 지부의 활성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는 기존의 회원들끼리 서로 자주 모여서 친목을 도
모하고자 노력하였다. 서로 모여 지부 활성화에 대한 공통
의 마인드를 형성하고 그 방안을 자연스럽게 토의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런데 전 회원이 자주 모이기란 생각처럼 쉽지가 않았
다. 모두들 자기업무에 너무 바쁘고 지부의 일은 지부장을
위시하여 몇몇 임원들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었다.
어떻게 할까 생각 끝에 일단 소수 인원이라도 학회 이름으
로 자주 만나서 지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그
래서 가능한 한 지부 이사를 많은 인원으로 선임하여 참여
의식을 높이고 책임감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조직을 개편
하였다.

또한 지역내의 전기 관련 단체 간담회란 이름으로 각계
대표(한국전력공사 전북지사, 전기공사협회 전북지부, 전력
기술인 협회 전북지부, 전기안전공사 전북지부, 전북도청
공업과, 중소기업청 전북지방사무소, 전기기술사 사무소등)
들을 초청하여 자주 모임을 가졌다. 주로 지방 전기관련 업
무에 대하여 간담회의 주제를 설정하고 정식 공문을 발송
한 결과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식
사와 가벼운 이야기를 시작하여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횡수
가 거듭될수록 서로가 점차 가까워졌으며 자연스럽게 대화
의 주제는 전기관련 현안문제와 상호 협조방안이 제기 되
기도 하였다. 그 첫 사업으로 먼저 전기 조명 설비학회 전
북지부와의 협조 및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6월에 두 학

회 회원들이 모여 전주 근교의 운장산에 등반대회를 개최하였다. 많은 회원들이 참석하여 서로 인사를 나누고 만남을 기뻐하였다. 두 학회 회원들간의 뜻 있는 만남을 축하하듯이 날씨도 화창했으며 산 정상에서의 모두의 만남은 우리 전북지부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과 아울러 향후 모임의 기폭제가 되었다. 하산식에서는 식사를 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겠다고 우기는 해프닝 속에 끈끈한 정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이 모임을 계기로 9월19일에는 다시 한국전력 전북지사의 도움으로 영광 원자력 발전소 견학을 실시하였다. 관광 버스를 대여하여 영광까지 다녀오는 길은 정말 전기인으로서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루 종일 함께 하면서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은 물론, 환경 문제에도 더욱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는 회원들간의 소개, 자기업체 및 소속 단체의 소개, 또한 회원 개인들의 재미있는 장기자랑 까지 곁들여 분위기는 더할 나위 없이 화기 애애 하였다.

서로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몰랐던 정보를 교환하면서 유관기관 및 단체끼리의 협조방안을 논의하면서 하루를 지냈으니 회원들간의 서먹서먹함은 금새 사라지고 이해의 폭은 더욱 넓어졌다. 금상첨화인 것은 이와 같은 분위기를 더욱 고취시키고자 하는 한전의 배려로 돌아오는 길에는 고창 선운사에 들러서 그 유명한 북분자술과 온천욕까지 곁들였으니 그날의 분위기는 더 이상 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는가?

이제 이러한 회원들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애경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지부에서는 바로 애사 시에 사용할 조기를 제작하였으며 이를 전 회원에게 알리고 애경사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이를 적극 유도하고 홍보하였다. 이렇게 하여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는 잘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행사는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는 신입회원의 확보와 지역 전기관련 사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하였다. 회원들간의 돈독해진 친목을 바탕으로 새로운 회원 확보에 나섰다. 먼저 타 학회만 가입한 교수 및 대학원생들에게 입회를 적극 권유하였으며 지역 내에 있는 관련 산업체에 회원 확보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기 기술인이 많이 근무하고 있는 도내 몇몇 대기업은 지부장과 임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기학회를 소개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노력도 병행했다. 이렇게 산업체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산학간 친목도모와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었으며 기술의 애로 사항 및 학계에 바라는 요구사항도 접수하여 산학협동의 기회로 삼기도 했다. 산업체뿐만 아니라 대 관청 업무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새만금 간척지구내의 풍력발전 건설계획에도 적극 참여하여 다각적인 면에서의 의견을 개진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를 계기로 지방 자치단체 내에서 전기학회에 대한 인식제고와 아울러 관청과 학계간의 호의적인 유대관계에도 많은 기여를 할 수가 있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관계는 지속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셋째는 회원들이 전기 기술개발 및 학술연구에 적극 힘 쓸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금년도 추계 전북지부 학술 발표 대회시에는 발표 논문집을 새롭게 제작 발행했으며 발표기회도 대폭 확대하였다. 추계 학술 발표시는 보다 많은 회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행사 팸플릿을 발송하고 일일이 회원들에게 참여를 부탁하는 전화 홍보까지 곁들인 결과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 또한 학계위주의 학술대회를 탈피하고 산업체 인사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하여 산업체 간부를 초빙하여 특별 강연을 실시하기도 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새로 제정된 전력기술 관리법에 대한 특강도 실시하여 모든 회원들간에 새로운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가졌다. 직접 학술발표에 참여한 회원에게는 격려금도 지급하여 사기를 북돋았으며 중앙 학술 발표에는 숙소의 편의도 제공하는 등으로 회원들의 학술 활동에 지부가 적극 협조하는 체제도 마련하였다. 향후에는 발표논문중 우수논문에 대하여 별도의 우수논문상을 시상할 계획도 추진중이다.

넷째는 학회 관련 행사 및 활동내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전기학회에 대한 인식제고에 노력하였다. 지부에서는 전기관련 타 학회의 활동에 비하여 조금은 위축되어 가는 행사를 그때그때 널리 홍보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전기학회의 활동을 홍보하는데 노력하였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매 행사시 마다 전 회원은 물론이고 유관기관, 산업체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 하였으며 이번 추계 학술대회때도 지방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를 실시 하였다. 또한 지난 7월에 용평에서 열린 하계 종합 학술대회에는 전북 도립 국악원의 국악인들을 참여시켜 판소리 및 가야금 명창, 민요등으로 회원들의 단합에 일익을 담당하였으며 예향의 고장임을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 지부의 활동을 널리 홍보하였다. 이와 같은 행사를 통하여 전북지부 회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킬수 있었던 것은 대외 홍보 못지 않은 부차적인 효과였었다.

다섯째는 지부 활성화를 위한 재정확충 이었다. 회원수가 적기 때문에 지부재정이 열악한 것은 당연하였다. 그러나 많은 행사에는 항상 많은 재정이 따랐다. 그래서 지부 행사시 지역내에 있는 관련 산업체 및 유관기관, 단체에 행사의 내용과 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 결과 어려운 가운데에도 많은 단체에서 호응해 주었다. 이 때문에 많은 행사를 계획할수 있었고 풍성한 결실도 맺을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부 활성화는 지부장과 임원들이 뛰는만큼 결실을 맺을수 있음을 실감했던 한해 였다. 이와 같이 한번 유대 관계를 맺은 업체 및 단체에서는 전기학회의 활동을 깊이 이해하였으며 매년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 하겠다는 약속은 물론이었다. 이처럼 학회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해주신 분께는 감사패 및 공로패를 증정 하였으며 이행하는 매년 실시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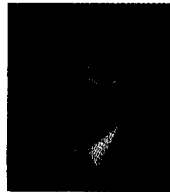
지금까지 지부 활성화를 위해 시행한 행사들을 위주로 몇가지 소개 하였으나 제약된 여건과 열악한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우리지부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활성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그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우선 그 중 몇 가지를 소개하면

- 각 대학 전기 관련학과에서 전기의 날(4월 10일) 행사를 전기관련 인사 및 업체, 가족들까지 참여시켜 대대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작품 전시회, 학술 발표, 특강, 체육대회 등)
- 재정이 허락된다면 매년 연구비를 마련하여 학술 연구 지원을 하는 방안과 대학 졸업식 등에 전기과 공로학생에게 시상하는 방법도 전기학회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추진 중이다.
-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여 인터넷에 지부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지부 활동상황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회원 및 지역 산업체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많은 방법과 계획들이 있으나 이 모든 것들은 지부장을 비롯하여 임원, 모든 회원들이 하나가 되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지부 활성화에 적극 참여할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향후에도 우리 전북지부는 대한전기학회 지부중 가장 활동이 왕성한 지부로 거듭나기 위하여 전 회원이 하나가 되어 노력할 것을 약속하며 끝으로 우리지부의 활성화 방안을 소개할 수 있도록 배려해준 학회장님과 전기학회 편집부에 감사드리며 전국의 모든 회원님들의 건강과 학문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공희(李公熙)

1950년 7월 16일생. 1973년 전북대 공대 전기공학과 졸업. 1981년 전북대 공대 대학원 졸업(석사). 1989년 전북대 공대 대학원 졸업(공학박). 1990년 Belgium Brussel 대학 (VUB) 연구교수. 현 전주공업전문대학 전기과 교수. 현 대한전기학회 전북지부장.